제3강 영원회귀-창세의 반복: 제논, 엘리아데, 니체 I

(1교시)

영원회귀-창세의 반복 : 제논, 엘리아데, 니체

1. 제논의 역설과 영원

“쏜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지나야만 날아가는 것이고, 일정한 거리를 지나기 위해서는 그 거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까지 가야만 하고, 그 중간 지점까지 가려면 출발점과 그 중간 지점 사이의 또 제 2의 다른 중간 지점까지 가야만 하고, 그 다른 중간 지점까지 가려면 출발점과 그 다른 중간 지점 사이의 제 3의 다른 중간 지점까지 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4의 중간 지점까지 가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무한하고, 그 무한개의 중간 지점을 하나하나 다 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쏜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되 거북이를 조금이라도 앞에 보낸 상태에서 하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킬레스가 제일 처음 거북이가 있던 제 1의 지점까지 가는 동안 거북이 역시 나름대로 더 가게 되고,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더 간 제 2의 지점까지 가는 동안 거북이 역시 나름대로 더 가게 되고,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다시 더 간 제 3의 지점까지 가는 동안 거북이 역시 나름대로 더 가게 되고,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다시 더 간 제 4의 지점까지 가는 동안 거북이 역시 나름대로 더 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이어지고, 그 무한한 과정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북이를 조금이라도 앞서 보내 주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맨 먼저 정말 기이하다고 여기게 되는 제논(Zenon, 490-430 B.C.)의 역설입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기고 하지만, 제논의 논리적인 상상력이 지닌 천재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현실과 완전히 모순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현실에 대한 지각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인 사유가 잘못된 것인가? 혹은 아니면 논리적인 사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논이 논리적인 사유를 잘못 펼친 것인가?

아무튼 제논의 이러한 역설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그래서 한편으로 대단히 공격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논리적 사유가 평범한 일상을 치고 들어와 뒤집어 엎어버리는 폭력적인 힘,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제논은 고대 헬라스 지역의 엘레아학파의 거두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520-440, B.C.)의 제자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최초로 정교한 변증법을 안출해 발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어떤 주장을 부인하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되며, 따라서 그 부인이 논리

www.artnstudy.com

적으로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 주장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여러 변증법적 논증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즉 변화(운동)에 관한 것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화(운동)는 시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만약 '존재하는 것'이 변한다면 '존재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변할 것이다. '존재하는 것'과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존재하는 것'이 변한다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없는 것으로 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부인하면 모순이 생기고, 따라서 그 주장은 옳다는 파르메니데스의 변증법은 오늘날 수학에서 말하는 귀류법과 흡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은 제논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역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갖는 폭력적인 힘이 어디에서 연원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전번 시간에 시간의 세 가지 양상, 즉 계속과 지속과 동시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제논의 거북이와 아킬레스 경주의 역설에 이를 적용해 봅시다. 처음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던 지점까지 간 것을 <사건 1>이라 하고, 그 다음 거북이가 다시 앞선 간 지점까지 아킬레스가 간 것을 <사건 2>라 해 봅시다. <사건 1>과 <사건 2>는 계속되긴 합니다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은 그 자체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흔히 우리가 같은 나무라 하는데 꽃이 피기 전의 나무의 상태와 꽃을 피운 나무의 상태를 두 개로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면, 그 나무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지속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그 나무를 동일한 나무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사건 1>과 <사건 2>는 꽃을 피우기 전의 나무 상태와 꽃을 피운 나무 상태처럼 계속되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지속을 없애버리고 나면 동일한 거북이와 동일한 아킬레스를 염두에 둔 동일한 경주의 두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경주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거북이들과 전혀 다른 아킬레스들 간의 두 경주가 되고 맙니다.

제논의 역설이 우리에게 폭력적인 힘으로 다가올 때, 그 힘의 원천은 지속으로서의 시간과 계속으로서의 시간이 결합되어 있는 현실의 시간에서 계속의 양상을 주도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속의 양상을 완전히 제거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논에서 시간은 오로지 계속의 양상만을 지닌 것입니다. 철저히 단속적인,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모두 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자기동일성을 지닐 수 없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 어떤 사건들도 존재할 수 없는, 따라서 도대체 시간이라고 조차 말할 수 없는, 극미한 지속조차 존재할 수 없는 무시간의 시간입니다.

제논의 이러한 역설은 파르메니데스의 역설을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역설에서 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언뜻 보기에는 제논의 역설과 정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계속의 양상을 중시하는 것 같고, 불변은 불변한 일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지속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속의 양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의 양상을 타는 것이 변화이지요. 그러니까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시간의 계속 양상뿐만 아니라 지속 양상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논의 역설을 극단적으로 밀고 들어가 아주 극미한 무한소의 영역에 적용

www.artnstudy.com

시키면, 갑갑하기 이를 데 없는 완전한 정지가 나타납니다. 그 어떤 극미한 사건조차 예컨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빅뱅에서의 최초의 10 분의 1초 운운하던 그 짧디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조차 있을 수 없는, 아니 그것보다 더 짧은 10 분의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조차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정지가 나타납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변화하지 않는 존재란 바로 이러한 완전한 정지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름의 새로운 역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지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 또한 지속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변화가 없는 지속 자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완전한 정지와 그리고 완전한 정지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완전한 지속 즉 자신 속에 정지의 계기를 전혀 갖지 않는 지속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만약 이를 영원이라고 한다면, 영원은 이렇게 완전한 역설입니다. 완전한 정지를 영원이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변화가 전혀 없기에 영원이라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의 경우처럼 완전한 정지이고, 완전한 정지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데서 영원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의 역설들이 지니고 있는 낯선 폭력적인 힘은 이렇게 시간을 파괴하고 역설 중의 역설인 영원한 정지이자 정지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죽음의 폭력성은 영원의 폭력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암암리에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폭력성은 정지의 폭력성이고, 영원의 폭력성 역시 정지의 폭력성이고, 따라서 죽음의 폭력성은 영원의 폭력성에 근거한 것임을 혹은 그 반대로 영원의 폭력성은 죽음의 폭력성을 추상화한 데서 생겨난 것임을 암암리에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과 영원의 역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열리는 영원과 영원을 통해 열리는 죽음의 역설 말입니다.

(2교시)

2. 엘리아데의 영원반복의 시간

1) 엘리아데의 '영원한 현재'

이러한 역설의 폭력을 이제 엘리아데에 의존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엘리아데(Micea Eliade, 1907-1986)는 신화학자이자 종교학자입니다. 그가 쓴 『성과 속』(이은봉 옮김, 한길사)과 『영원회귀의 신화』(심재중 옮김, 이학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합니다.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은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를 존중하여 그의 일자(一者 hen)의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시간을 영원한 일자를 닮은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시간을 통해 영원으로 상승

www.artnstudy.com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경우 시간에 구속된 우리의 존재 방식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무시간적인 논리적인 사유의 숙고를 통해 일자를 알 수 있는데 반해, 플라톤은 그 반대로 시간을 통해 특히 천체의 시간을 통해 일자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엘리아데가 숙고하는 시간은 플라톤의 이러한 시간과 엇비슷한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엘리아데는 두 책 특히 『영원회귀의 신화』를 통해 고대인들의 제의와 축제가 어떻게 일상적인 시간을 벗어나 영원반복의 시간을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속된 일상적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성화하고 갱생시키는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데는 물론 철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을 하는 데 아주 긴요한 구체적인 사료(史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데는 속된 시간과 성스러운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인간을 특이한 존재로 상정하면서 비종교적인 인간과 대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시간 즉 그 전후의 시간 지속과 공통점을 갖지 않는 전혀 다른 구조와 기원을 가진 시간의 차이를 체험한다. 그 시간은 신들에 의해 성화되고 축제에 의해 재현된 원초적인 시간이다. 이 전례의 시간의 초인적인 성격은 비종교적인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렵다. 비종교적인 인간에게 시간은 단절도 신비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시간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실존적 차원을 형성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처음과 끝(생명의 소멸인 죽음)을 가지고 있다. 그가 체험하는 시간의 리듬이 아무리 다양하고, 농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비종교적인 인간은 신의 현존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인간적 체험이 항상 개입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반하여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속된 시간 지속은 주기적으로 정지된다. 왜냐하면 어떤 의례는 (역사적 현실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역사적인 성스러운 시간의 주기에 의하여 그것을 중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성과 속』, 91쪽)

원초적인 시간은 신들에 의해 성스러운 것으로 되고, 인간은 축제를 통해 이 원초적인 시간을 재현하고, 그런 축제와 제의는 지속과 역사로서의 세속적인 시간을 정지시키고 단절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아데가 말하는 우주 창조 신화를 둘러싼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아데는 고대의 제의와 축제는 거의 대부분 우주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컨대 바빌론의 제의인 '아키투'(akitu)에서는 "그가 계속 티아마트를 공격하고 그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를"이라고 제관(祭官)이 외치는데, 그것은 마르두크라는 창조의 신이 바다의 괴물인 티아마트를 찍어 누르고 그 절단된 육체로써 우주를 창조한다는 신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의 과정에서 마르두크를 상징하는 배우 그룹과 티아마트를 상징하는 배우 그룹이 서로 투쟁하는데 그것은 바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이행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같은 책, 95쪽 참조)

지속과 역사로서의 세속적인 시간을 일시 정지하고 제의와 축제를 통해 우주 창조 즉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행하는 원초적인 신성한 시간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이 우주 창조는 신적인 것의 최고의 현현이고, 힘과 충실, 창조성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 창조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왜 고대인들이 우주 창조의 신화를 되풀이하여 재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원기

www.artnstudy.com

왕성한 에너지의 분출에 참여함으로써 재활성화 내지는 갱신 및 부활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같은 책, 96-7쪽 참조)

세속적인 시간은 우주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고(여기에서 우리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소진된 우주의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시간을 중지시키고 세속적인 시간이 더럽혀 놓은 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시간을 통해 생겨난 과거와 역사는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가 밝아오는 것은 지나간 해 즉 과거의 시간을 폐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www.artnstudy.com